



Global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하형민 hyeonminha@hanafn.com

2026년 8월 18일 | Global Asset Research

해외크레딧

AI 투자 확대, 호주달러 크레딧의 새로운 공급원

AI 투자 확대, 호주 데이터센터의 자금 수요로 전이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함께 대형 기술기업과 데이터센터 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AI 관련 투자가 이익과 잉여현금흐름 개선을 앞서면서 대규모 자금 수요가 기술기업의 재무제표를 넘어 데이터센터 기업과 금융시장으로 분산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호주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가 전체 기업 투자를 끌어올릴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RBA는 8월 경제전망에서 최근 기업 투자 증가가 주로 데이터센터 투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향후 관련 투자 전망도 상향되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아마존은 2025~2029년 호주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200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OpenAI와 NEXTDC 등도 시드니 AI 캠퍼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호주달러 크레딧과의 연결은 현지 데이터센터 기업의 자금 조달로 확인되고 있다. 장기 고객계약 이후 전력 확보와 건설, 가동 이전의 투자비와 금융비용은 데이터센터 기업이 먼저 부담하게 된다. 즉, 글로벌 AI와 클라우드 수요가 호주 데이터센터 기업의 선행적 자금 수요로 등장하여, 그 일부가 호주달러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NEXTDC에서 CDC까지. 호주달러 조달의 확장

NEXTDC는 계약용량 확대 이후 자본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증자, 은행 대출과 함께 장기 하이브리드 채권과 후순위 채권을 활용했다. CDC Data Centres는 호주 국내 데이터센터의 첫 투자등급 채권으로 조달 범위를 넓혔다. CDC Data Centres Australia는 Moody's 기준 Baa2 등급으로 7억 호주달러 규모의 선순위 담보부 채권을 발행했으며, 총 주문액은 44억 호주달러를 넘어서며 발행액의 6배 이상을 기록했다.

상기 사례들은 AI 데이터센터 관련 호주달러 조달이 후순위에서 선순위 투자등급으로 확대되었고 충분한 기관 수요 역시 확인되면서 새로운 산업의 자금 수요가 실제 공모 크레딧 공급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장한 호주달러 크레딧 시장. 하이퍼스케일러 직접 조달로 확장

호주달러 크레딧 시장 자체의 외연도 커지는 흐름이다. 올해 호주달러 크레딧 발행액은 1,570억 호주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발행 종목 수도 18% 늘었다. 해외 발행사가 전체 발행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홍콩 MTR과 스페인 CaixaBank 등 신규 해외 발행사 진입도 이어지면서 시장의 발행 기반과 투자자 저변이 함께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올해 들어 하이퍼스케일러의 자금 조달처 다변화 시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오라클 등 4개 하이퍼스케일러의 올해 채권 발행액은 2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조달되었던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을 마지막으로 회사채 미발행). 이 가운데 비달러 채권 비중 역시 전체 조달의 약 28%까지 확대됐다.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필요 조달 규모가 커지면서, 반복 발행에 따른 기존 시장의 공급 부담과 투자자 기반 확대 필요성이 복수 통화 조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흐름은 호주달러 시장으로도 확장되기 시작했다. 알파벳이 첫 호주달러 캔거루 본드 발행을 위한 만데이트를 공표했으며, 시장에서는 약 40~50억 호주달러 규모로 다중 만기 트랜치 북빌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규모로 달러가 성사될 경우 호주 역대 최대 수준의 기업 회사채 발행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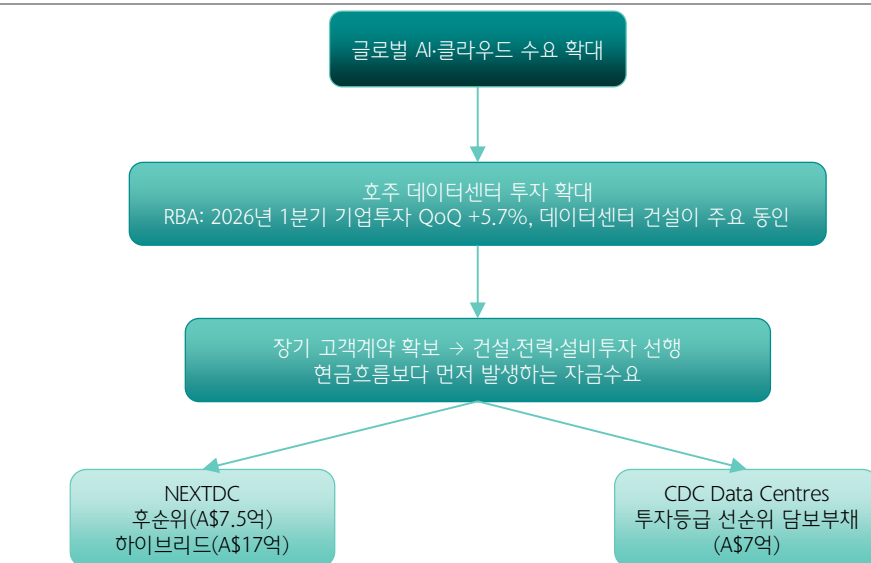
알파벳의 호주달러 시장 진입은 저비용 조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알파벳은 올해 미국 달러를 비롯해 유로, 파운드,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엔화 채권을 발행했으며, 호주달러는 일곱 번째 조달 통화가 된다. 8월 초 달러화 조달에도 충분한 수요가 유입됐고, 최근 달러채의 호주달러 자산스왑(ASW) 환산 레벨을 감안해도 호주달러 조달이 뚜렷한 비용 우위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호주달러 조달은 달러 시장의 수요 부족이나 단순한 비용 절감 측면보다는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달 통화와 투자자 기반 다변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AI 산업 관련 호주달러 조달은 NEXTDC와 CDC에 이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로 확장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알파벳의 첫 호주달러 조달은 성장한 현지 투자자 기반이 대형 글로벌 기술기업의 자금 수요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AI 인프라 자금 조달이 호주달러 시장 수급을 좌우할 규모는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발행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만큼 실제 발행 규모와 장기물 수요, 그리고 향후 타 하이퍼스케일러의 시장 진입 여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표 1.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현지 기업의 선행적 자금 수요로 전이

RBA,
올해 1분기 호주 기업 투자가
예상보다 강했고
데이터센터를 주요 동인으로 평가.

장기 고객계약 이후
투자비 집행을 위한
선행적 자금 수요가
호주달러 시장성 조달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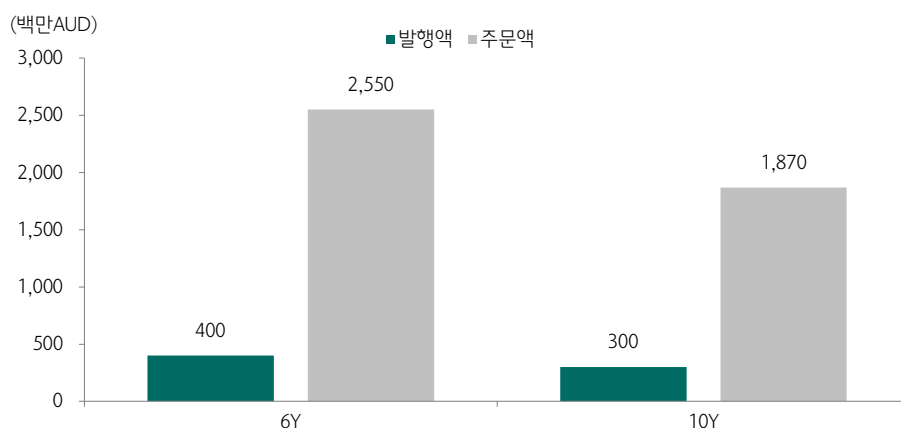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7월 CDC 첫 투자등급 데이터센터 채권 북빌딩 결과

CDC의
7억 호주달러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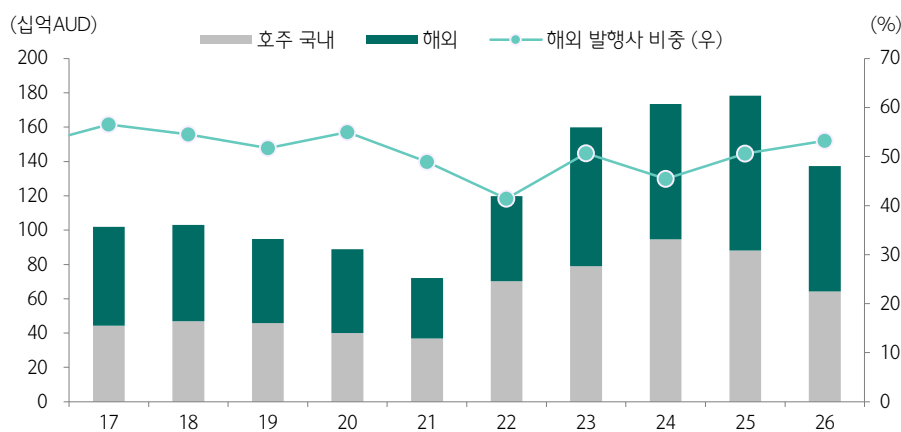
첫 호주 데이터센터
투자등급 채권으로서
주문배수 6배 이상 달성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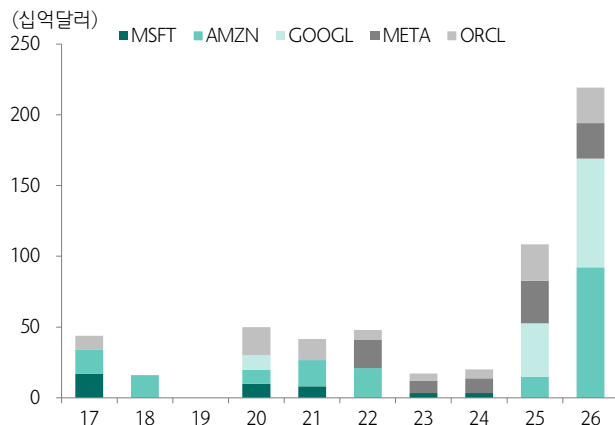
도표 3. 호주달러 크레딧 발행 확대. 해외 발행사가 절반 이상 차지

글로벌 발행 및 투자 기관들의
호주달러 크레딧 시장
관심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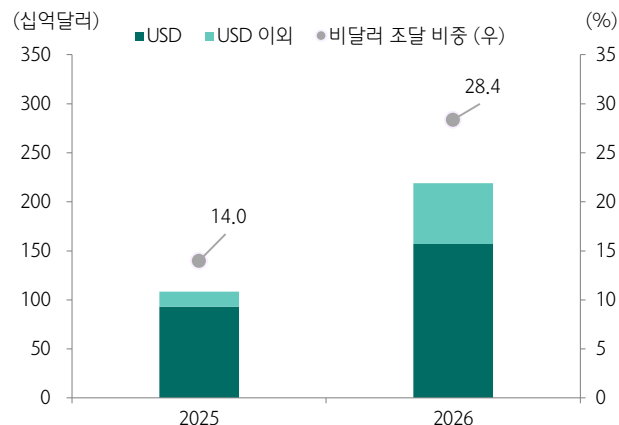
주: (1) 호주 준정부기관 채권 제외. (2) 발행만기 1년 초과 및 발행금액 1억 호주달러 이상 채권 기준. (3) 2026년은 8월 현재 YTD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회사채 조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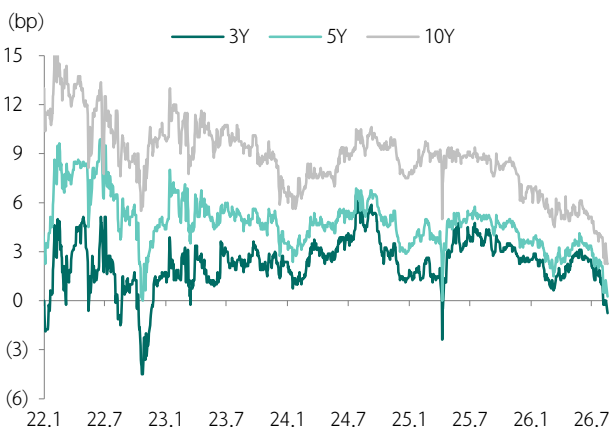
주: USD 이외 통화는 발행 당시 환율로 USD 환산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달러 이외 통화 조달을 늘리는 하이퍼스케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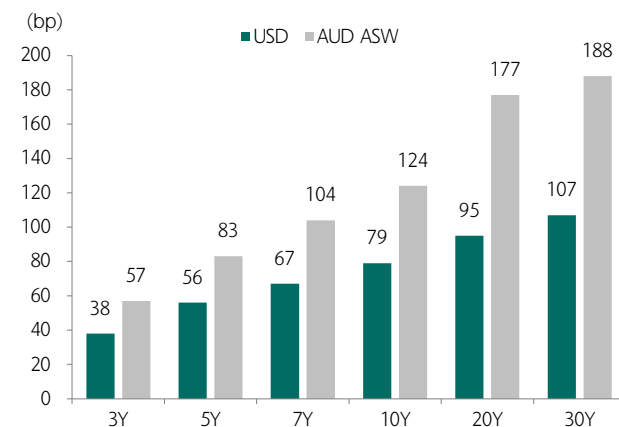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6. AUD/USD 스왑베이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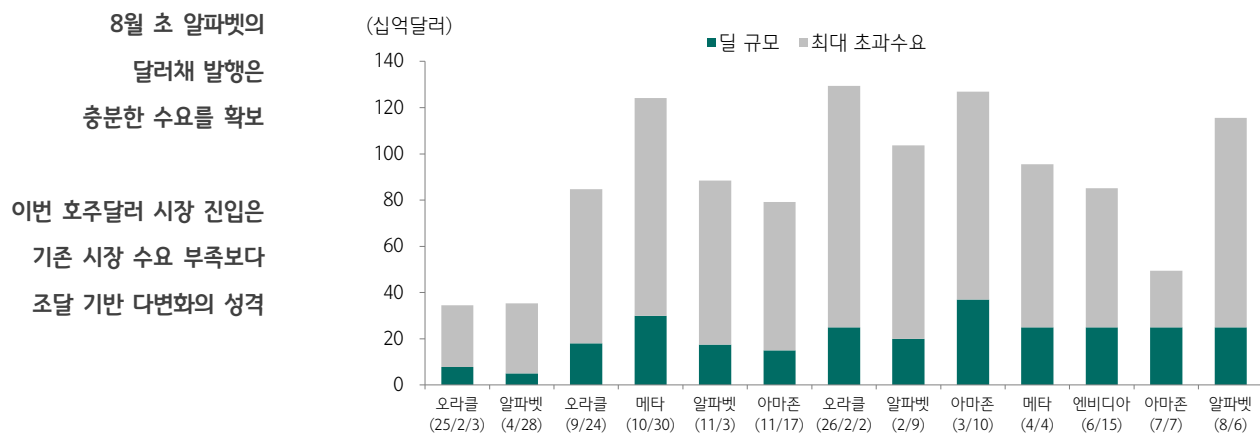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7. 알파벳 8월 발행 달러채의 호주달러 ASW 환산 레벨



주: USD는 8/18 기준 UST 대비 매수 스프레드
자료: GlobalCapital,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8. 2025년 이후 주요 기술기업들의 달러 회사채 복빌딩 결과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8월 초 알파벳의
달러채 발행은
충분한 수요를 확보

이번 호주달러 시장 진입은
기존 시장 수요 부족보다
조달 기반 다변화의 성격